1. 작품설명
   1. 시각디자인프로젝트
   2. CAMOUFLAGE
   3. 120 x 200 x 12 mm
   4.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야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남성들은 짧게는 19개월, 길게는 24개월 동안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납한다. 군에 입대한 후 사회에서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오던 남성들은 “군인” 이라는 통일된 개체로 간주된다.

모두 똑같이 머리를 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보급품을 사용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으며 획일화된다.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과거의 지위는 점차 사라지고, 훈련병, 이등병, 분대장 등 군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사회와 접촉이 어려운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과거의 지위는 점차 잊혀지고 지워지며, 군에서 얻게 된 새로운 역할들이 강조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개인은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 작품은 입대한 사람이 군대의 폐쇄성으로 인해 살아온 사회로부터 잊혀져 가는 과정을 군복의 디지털 무늬로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는 군복 무늬는 적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입대 후 자연스럽게 과거의 모습들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과정을 디지털 무늬를 통해 표현하였다.